

# 솔로 데뷔 수현 “유키스 없었으면 저도 없어요”

1일 첫 미니앨범 ‘카운트 온 미’ 발표  
“첫 앨범엔 긍정 에너지 담으려 했다”

2008년 데뷔해 어느덧 데뷔 14년 차 2세대 아이돌 그룹 ‘유키스’의 리더 수현이 국내 첫 싱글 앨범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번 앨범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했다. 지난 29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현은 “모든 것이 감사하다”며 “오래 전부터 제 솔로 앨범에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준비한 수현의 첫 미니앨범 ‘카운트 온 미’(count on Me)는 팝과 락을 기반으로 한 각기 다른 장르의 4곡이 들어있다.

타입틀곡 ‘소주의 요정’은 빛과 소금의 ‘삼푸의 요정’을 오마주한 곡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을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취해가는 과정에 빚대어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서사를 담으려 했다. 노래가 진행될수록 술에 취해 풀어지는 듯한 느낌과 감정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재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SBS M ‘더쇼’ 무대 녹화를 마쳤다는 그는 “그날 감사하게도 팬분들이 와주셨다. 무대를 보고 안도하시더라. ‘소주의 요정’ 제목을 듣고 다들 트로트인줄 알고 걱정했다고 하더라”고 전하며 웃어보였다. 이 밖에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웨

이크 미’(Wake Me), 그룹 ‘틴탑’의 니엘과 함께 부른 어린시절 친구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마이 프렌드’(My Friend), 청춘하러는 남자의 마음을 표현한 알앤비 발라드 곡 ‘메리미’(Marry Me)까지 담겨있다.

이에 수현은 “누구나 다양하게 겪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했다. 보통의 정서와 감정을 들려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앨범을 통해 그는 “무대에 서고 노래를 부르지만 편한 옆집 오빠, 이웃 사촌 느낌의 인상으로 남고 싶다”라며 대중에게 편하게 다가가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본격적인 솔로 활동에 나선 수현이 꼭 해보고 싶은 노래가 있다며 로꼬와 유주가 부른 ‘우연히 봄’을 꼽았다. 수현은 “우연히 봄” 같이 밝은 노래를 꼭 해보고 싶다. 저는 노래를 하고 랩을 잘하는 여성 아티스트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현은 솔로로 출격하는 와중에도 ‘유키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유키스’를 생각할 때면 몽롱하다고 했다. 좋았던 시절도 힘들었던 시절도 모두 ‘유키스’에서 비롯됐다는 그는 “유키스라는 그룹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다. 다시다난 했지만 행복하고 즐거웠던 추억이 훨씬 많다”며 가끔 유튜브에서 유키스 무대 영상을 보게 되면 너무 슬



프다고 했다.

그는 “솔로 활동도 그렇고 무엇이든 제가 좀 더 잘하면 다시 무대에 함께 설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 열심히 하고 싶다. 멤버 훈이, 기섭이와 완전체의 모습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수현은 “국내 솔로 활동을 시작한

만큼 불러 주시고 찾아주신다면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 소통하려고 한다”라며 “많은 분들이 이번 앨범을 통해 추억을 떠올리시고 더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수현의 첫 미니앨범 ‘카운트 온 미’는 8월 1일 낮 12시 발매된다.



## ‘강철불’ 김성주·김동현 김병지·최현호 출연

채널A의 새 예능 ‘강철불: 피구전쟁’ 측은 MC 김성주·김동현, 감독&코치로 김병지·최현호가 캐스팅을 확정지었다고 1일 밝혔다.

‘강철불: 피구전쟁’(이하 ‘강철불’)은 ‘강철부대’ 시즌 1&2에 출연한 부대원들이 본격 피구에 도전하는 스포츠 예능. 각 부대원들이 혹독한 ‘사바이벌’을 거쳐 피구 선수로 성장한다.

무엇보다 ‘강철불’은 시즌1 특전사 박군·707, 이진봉·SSU 황충원과 시즌2 정보사 이동규·707 이주용 등, 총 26명에 달하는 강철부대 부대원들의 대거 출연을 알린 바 있다. 여기에 ‘강철부대’의 대결을 관전해온 ‘더춧대감’ 김성주와 김동현이 각 부대원들의 성향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만큼 맞춤형 중계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26명의 부대원을 이끌어갈 ‘팀 강철불’의 감독과 코치로는 레전드 골키퍼인 김병지와 방콕아시아게임 남자핸드볼 금메달리스트 최현호가 합류한다. 김병지는 타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감독 경험을 기반으로 부대원들에게 피구에 필요한 순발력과 방어력을 가르칠 예정이다. 최현호 역시 핸드볼 기술을 집묵한 실전 피구 기술을 가르친다.

제작진은 “‘강철부대’의 기존 MC 김성주와 김동현을 비롯해, 최정에 김보진인 김병지·최현호가 26명의 대원들을 향한 맞춤형 지원사격에 나설 것”이라며 “축구와 핸드볼의 기술을 결합한 독특한 피구 훈련과 함께 양보 없는 전쟁을 거쳐 선발된 ‘팀 강철불’의 최종 멤버가 누가 될지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8월 중 첫 방송.



## ‘법대로 사랑하라’ 이승기 이세영, 푹푹한 교복샷

KBS 2TV 월화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이승기와 이세영이 섹션 넘치는 교복샷을 공개했다.

오는 29일 오후 9시50분 첫 방송되는 ‘법대로 사랑하라’는 검사 출신 한량 건물주 이승기(김정호 분)와 4차원 변호사 세입자 이세영(김유리 분)의 로(Law)맨스 드라마다. 이 작품은 2500만 뷰를 기록한 노승아 작가의 인기 웹소설을 드라마로 각색했다.

공개된 스틸컷 속 이승기와 이세영은 17년 전 짝사랑의 시작인, 고등학교 시절도 회귀했다. 항상 전교 1등이었던 김유리가 전학과 동시에 전교 1등 자리를 꿰찬 김정호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며 두근거림을 일으킨 상황. 처음으로 1등을 놓친 김유리는 김정호에게 저절로 항하지만, 막상 김정호 앞에 앉자 장화신은 고양이의 애절함을 가득 담은 눈빛을 보낸다.

당황하던 김정호 역시 어느새 흐트러지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초여름의 설렘을 드러냈다. 과연 김유리가 김정호에게 향한 이유는 무엇일지,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17년간 짝사랑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 이선희·포레스텔라→잔나비...‘600년의 길이 열리다’ 1차 라인업

광복 77주년 기념, 오는 13일 공개

광복 77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대표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한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단, KBS 한국방송이 주관하는 광복 77주년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특별공연 ‘600년의 길이 열리다’가 오는 13일 오후 7시 10분 청와대 본관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가운데, 아티스트 1차 라인업이 1일 공개됐다.

먼저 가수 이선희가 출연을 확정했다. 이선희는 우리나라 역사의 상징인 청와대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 청와대의 미래와 국민 대통합의 의미를 가득 담은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Forestella) 역시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에 늘 함께했던 청와대 본관 중앙계단을 무대로 어린이 합창단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준다.

이 밖에도 잔나비, 멜로망스, 에이핑크, 초콜릿, 하성운, 디보이즈 등 인기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청와대 곳곳에 숨겨진 역사의 의미와 문화재로서의 숨은 가치를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전달한다.

한편 ‘600년의 길이 열리다’는 KBS 1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KBS WORLD로 전 세계 117개국에 동시 송출된다. 유튜브 채널 KBS K팝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만날 수 있다.

해당 공연에는 3000명의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으며, 관람을 희망하는 사람은 1일 오후



2시부터 3일 자정까지 문화재청 홈페이지와 KBS 홈페이지를 통해 1인당 2매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 오는 8일 문자로 관람을 안내할 예정이다.

뉴스1

## ‘당소말’ 지창욱 “성동일·최수영, 첫 촬영 호흡 완벽”



KBS 2TV 새 수목드라마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주역 지창욱·최수영·원지안이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했다.

먼저 지창욱(윤겨레 역)은 “성동일 선배님을 비롯해 최수영, 원지안 배우 모두 첫 촬영부터 호흡이 완벽했다. 작품만큼 따뜻하고 즐거웠던 현장”이라고 돌아봤다. 이어 “호스피스 병원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 많은 선배님, 배우분들을 만나는데 한 번 오시면 시골벽처럼 감동받게 힘들어하실 정도였다. 현장에서 제가 느낀 좋은 에너지가 시청자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최수영(서연주 역)은 “제가 팬이었던 분들과 함께 작업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대본 리딩 전부터 설렘했다. 현장에서는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나왔고, 제가 에드리브를 시도해도 다 받아주셔서 재미있게 촬영했다”

며 출연진들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끝으로 원지안(하준경 역)은 “지창욱 선배님과 연기할수록 준경이라는 인물에 대해 많이 실감하게 됐고 성동일 선배님과 호흡할 때는 매번 이유 모를 따뜻함을 느꼈다. 또 최수영 선배님과 마주했을 때도 따뜻하게 품기는 에너지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많이 이끌렸다”며 다양한 인물과의 시너지를 예고했다.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은 삶의 끝에 내몰린 위대로운 청년이 호스피스 병원에서 사람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며 아픔을 치유해가는 힐링 드라마다. 말기 암 환자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네덜란드의 실제 재단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8월 10일 오후 9시 50분 첫 방송.



## BTS ‘온’ 키네틱 필름도 5억뷰 넘겨...14번째 뮤비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온(ON)’ 키네틱 매니페스토 필름 뮤직비디오가 5억뷰를 찍었다.

1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MAP OF THE SOUL : 7)’의 타이틀곡 ‘온(ON)’의 키네틱 매니페스토 필름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전날 오후 9시21분께 5억 건을 돌파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통산 14번째 5억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됐다.

‘온(ON)’은 방탄소년단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진정성을 가득 실은 힙합 곡이다. 솔(Soul) 풀하면서 중독성 있는 보컬과 대규모 세션 사운드가 조화를 이룬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방탄소년단의 포부를 담았다.

‘온’ 키네틱 매니페스토 필름 뮤직비디오에서 방탄소년단은 30여 명의 댄서와 마칭 밴드(marching band)가 함께하는 대규모 퍼포먼스를 구현했다. 멤버들의 드림 연주, 댄스 브레이크 등 다채로운 구성이 눈길을 끈다.

지난 2020년 2월 발매된 ‘맵 오브 더 솔 : 7’은 미국 내 판매량 100만 이상을 넘겨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로부터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했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선정 ‘2020 글로벌 올 포맷 차트’와 ‘2020 글로벌 앨범 세일즈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초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재진입하는 등 발매 2년이 지났음에도 인기다.